# 음악도시 강진, 차세대 음악 스타 발굴 돌입

## 26일 1차 예선 박제하, 조서은 등 전남권 미래 창의인재 참가
## 월간 예선 3회 추진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서 우승자 가려

음악도시 강진군이 노래, 춤, 연주 등 음악 분야에 재능을 가진 미래창의인재 의 성장을 지원하고 3대가 함께 즐기는 강진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유소년 재능경연대회 1차 예선이 오는 26일 오후 3시 강진오감통 전남음악창작소(오감길 2) 2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는 7~9월 넷째 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예선의 첫 경연으로 '대한민국 MZ 끼 경연대회' 국악부문 은상 수상자 박제하(순천), 제61회 빛고을 예술제 엘리트대상 수상자 조서은(영암)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모인 12팀이 본선 진출카드 4장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예선을 통해 선발된 우수자 12명은 오는 10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메인 무대에서 결선을 치러 최종 우승자에게는 300만원의 재능개발 장학금이 수여되고 2026년 중 전남음악창작소와 연계, 강진을 담은 음원을 발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음악에 열정을 가지는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재능 발굴을 위한 등용문이 대부분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신체적 차이 등을 고려해 유소년 미래창의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음악도시 강진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각종 대회 수상자 및 방송 출연자들이 참가하는 유소년 재능경연대회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폭염과 장마가 누그러지는 9월 강진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3차 예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장흥군, '미백 이청준 문학관' 설계안 확정… 건립 본격 추진

# 전시·교육·체험 기능 갖춘 복합문학공간으로 재탄생

장흥군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미백 이청준' 작가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공간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축 설계안을 확정했다.

군은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해 총 8건의 작품을 접수했다. 지난 15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이청준 작가의 문학세계와 주변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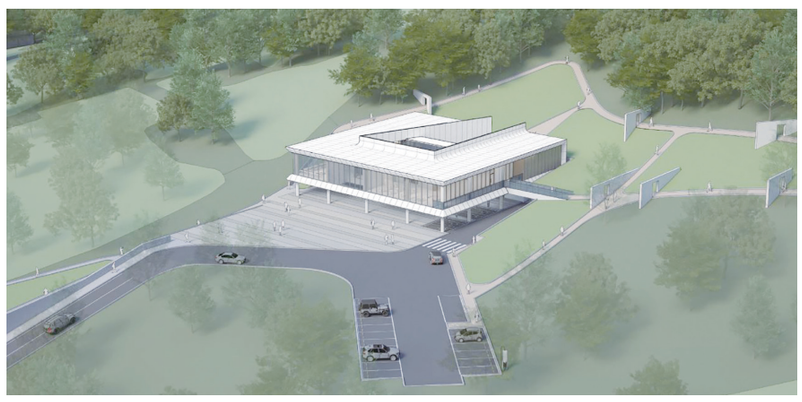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장흥 출신의 소설가 이청준(1939~2008)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널리 알리고, 문학 전시와 교육,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학관은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산 261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889㎡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 구조, 시공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작품의 창의성, 공간 활용성, 지역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선정된 당선작은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를 건축적 공간으로 풀어낸 점에서 예술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청준 문학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작가의 문학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함과 동시에, 방문객이 문학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준 작가는 「병신과 머저리」, 「눈길」, 「축제」 등 한국 현대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을 남긴 장흥 출신 소설가다.

문학성과 지역성을 아우르는 이번 문학관 건립은 장흥군이 지향하는 '지역 전체의 문학 플랫폼화' 조성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장흥군 제공

## 고흥군, '제9회 송수권시문학상' 작품 공모 시작

## 총 상금 4,500만 원… 2025년 9월 19일까지 접수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 출신의 서정시 대가 송수권 시인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문학 발전과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9회 송수권시문학상」 작품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9일 18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마감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응모 대상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 출간된 시집으로, 타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등단한 시인만 응모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타인의 추천을 통한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접수는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진행되며, 신청서와 함께 시집 1권을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 신청서는 고흥군청 홈페이지(https://www.goheung.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문학상은 총 3개 부문에서 시인을 선정하며, 총 시상금은 4,500만 원 규모다. '본상'은 등단 10년 이상의 시인 1명을 선정해 상금 3,000만 원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시인 중 1명을 선정해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올해의 젊은시인상'은 등단 10년 미만의 시인 1명을 선정해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당선작 발표는 2025년 10월 중 고흥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시상식은 같은 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송수권 시인의 깊은 서정성을 기리는 이번 문학상이 한국 시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문학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광주문학관, 지역 문학자료 25일까지 공개 수집

## 고전문학 희귀본부터 지역 문예지·친필자료까지… 보존·전시 활용

광주문학관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기 위해 지역 문학자료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수집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고전 및 근현대 문학자산 가운데 희소성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집 대상은 ▲'대각국사문집', '북천일록' 등 고전문학 희귀본 ▲'설강동요집', '김현승 시초' 등 주요 근현대 초판본 ▲'호남학보', '호남평론' 등 지역 문예지 및 일간지 등이다. 또 지역 작가의 친필원고, 편지, 졸업앨범 등 유일본 자료나 문학 관련 연극·영화 자료, 악보 원본 등도 포함된다.

수집된 자료는 문학·기록물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기증·매입 여부가 결정된다. 기증자에게는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기증내역을 공개하고, 명패 부착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광주시는 최종 수집된 자료를 보존처리를 거쳐 광주문학사 연구와 상설·기획전시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문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은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된 서식을 작성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aceno747@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공개수집은 지역 문학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소중한 문학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문화유산자원과 독서진흥팀(062-613-3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혜정 기자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지역 문화 협력 관계 구축

## 전남도립미술관·산이정원·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은 전남도립미술관, 산이정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과 입장권 상호 할인과 공동 홍보 등 업무협약을 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해당 기관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9월 16일부터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BLACK & BLACK' 특별전을 무료로, 국립중앙박물관 순회 전시인 '마나모아나 –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전시(10월 2일~12월 28일)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해남 산이정원은 권종에 관계없이 산이정원을 5천 원에 관람할 수 있고,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전시 기간 중 전남도립미술관, 산이정원, 해양치유완도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 비엔날레 현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남을 대표하는 도립미술관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산이정원, 해양치유완도와 협약해 보다 많은 분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전남의 우수한 관광지를 함께 경험할 기회를 마련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문화 교류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일원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작가의 전통 수묵의 미학의 계승부터 현대적 재해석에 이르는 다채로운 작품이 전시된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